1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 경기가 구름관중의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설렌다" "묘하다" "새롭다"…호랑이들의 가을 잔치

KIA 김광수·막내 한승택 등 10명 첫 포스트시즌
고효준 적에서 동지로
임창용·서동욱 친정 복귀

만원 관중 앞에서 포스트 시즌을 치렀다는 자체로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2016년 10월10일. 설렘과 감격 또는 부담감 등 다양한 감정과 표정 속에 KIA 타이거즈의 28명이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맞았다.

KIA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서 처음 포스트 시즌 무대에 오른 이는 1994년 막내 한승택부터 1981년생 베테랑 이성우까지 10명이다.

지난해 경찰청 전역 후 참가했던 애리조나 교육리그 경기 도중 공에 맞아 언어 장애가 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던 한승택은 반전의 가을을 이루며 가슴 떨리는 순간을 맞았다.

이날 스타팅 라인업까지 이름을 올린 한승택은 경기 전 "밤에 푹 잤다. 엔트리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다. 떨리기도 했는데 하던 대로 편하게 경기를 하고 싶다"고 자신의 첫 포스트 시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지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와 제 2의 야구 인생을 연 17년 차 김광수에게도 10일은 특별한 포스트 시즌이었다. 2002년 KIA를 상대로 처음 포스트시즌을 경험했지만 그라운드에는 서지 못했다.

이제는 KIA의 베테랑 선수가 되어 맞은 가을. 김광수는 "2002년 이후 14년 만이다. 그때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어른이 돼서 하는 것이다"고 웃으며 "반드시 이기고 싶다"며 다시 찾아온 가을잔치를 반겼다.

2005년 SK의 육성선수로 시작했던 이성우도 12년의 프로생활 끝에 특별한 가을을 보냈다. 대졸 10년차 이호신에게도 첫 가을 무대였다. 앞으로 KIA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 3인방 한승혁·홍건희·김윤동에게도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이었다.

타이거즈의 승리를 목표로 각오를 다진 이 중에는 '옛적'들도 있다. 2009년 가을 한국시리즈에서 SK 유니폼을 입고 KIA 타자들을 상대했던 고효준은 이번 가을에는 타이거즈 일원으로 와일드결정전 무대에 올랐다.

고효준은 경기 전 "기분이 이상하다. 재미있을 것 같다. 경험 없는 후배들을 이끌고도 해야 하는 만큼 즐겁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화 시절 '호랑이 천적'으로 통했던 이범호도 2011년 준플레이오프에 이어 KIA에서 두 번째 잔치를 치렀다. 2006년 준플레이오프에서 한화 투수로 나왔던 최영필도 있다. 최영필은 SK, 한화에 이어 KIA까지 세 팀에서 가을잔치를 했다. 김주찬도 신인 시절이던 2000년 삼성을 시작으로 롯데, KIA에서 포스트시즌 기록을 남겼다. 김주찬은 2000년 준플레이오프에서는 대주자로 나서 도루 실패 하나만 남겼다.

임창용과 서동욱은 다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기다렸던 가을을 맞았다. 1996년 1997년 해태 유니폼을 입고 우승 현장에 섰던 임창용은 2016년 가을 그리웠던 빨간 유니폼을 입었다. 2004년 준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았던 '아기 호랑이' 서동욱도 돌고돌아 친정에서 결실의 가을을 맞았다. 올시즌 무조건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돌아와 정규시즌 우승에 큰 역할을 한데다 맹장수술이라는 악재까지 넘고 맞은 시간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한편 2009년 선수로서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았던 이대진, 윤동훈은 코치로 5년 만의 가을잔치에 함께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개막식 기분…떨리는 것 없다"

덕아웃 T 톡·톡

▲개막식하는 기분이다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끝내기 홈런까지 때려본 나지완이다. 그래서인지 5년 만의 가을잔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10일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앞서 나지완은 "떨리는 것은 없다. 개막식을 하러 온 기분이다"고 가을잔치 소감을 밝혔다. 옆에 있던 코칭스태프는 "저기 좌측 상단만 보면서 경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웃었다. 나지완은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 잠실 외야 좌측으로 큰 타구를 보내면 KIA의 'V10' 마침표를 찍었다.

▲처음부터 하려니까 새롭네

산전수전, 한미일 무대까지 경험한 베테랑 임창용이다. 임창용은 "경기장에 오기 전까지 많이 떨리더라"던 어린 선수들과 달리 느긋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떨릴 게 뭐가 있느냐"면서도 "기분이 새롭다"고 말하던 임창용. 그의 설명은 "그동안에는 바로 한국시리즈에서 던졌는데 이번에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하려니까 기분이 새롭다"였다.

▲중립을 지키겠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린 잠실구장에 반가운 손님이 등장했다.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의 중심에 있던 최희섭이 KIA 덕아웃을 찾았다. 최희섭은 취재진을 보자 "오늘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중립을 지키겠다"고 특유의 웃음을 지었다.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중립을 지키겠다던 최희섭. 반면 서재응은 "방송에서 KIA가 이길 것이라고 했다. 이순철 위원님도 KIA를 찍었다"고 웃었다.

▲5타석에 들어서면 이기겠죠

10일 라인업은 초반부터 강하게 승부를 걸기 위한 계산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경험 많은 김선빈을 1번 타자로 배치했고, 2번 타자로 브렛 필을 선택했다. 강한 2번 타자를 선호한다고 언급해 왔던 김 감독은 중요한 경기에서 필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 김 감독은 "오늘 필이 타석에 5번 들어서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않겠느냐"면서 "선수들에게 후회 없이 하자고 했다. 내일도 팬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

테헤란 첫 승·조 1위…두 토끼 사냥 나선다

슈틸리케호, 오늘 러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 원정

FIFA WORLD CUP RUSSIA 2018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란 원정에서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한국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1일 밤 11시 45분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홈팀 이란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4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란을 꺾으면 42년 만에 테헤란에서 역사적인 첫 승을 기록한다. 동시에 A조 1위로 뛰어오르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희망을 밝힐 수 있다.

◇ **42년 만의 이란 원정 무승 징크스 깬다** =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 7무 12패로 열세에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3번의 맞대결에서 한국은 모두 0-1로 패했다.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에서도 0-1로 무릎을 꿇었다. 2012년 10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에서도 0-1로 패했다.

한국이 최근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내리 3연패를 한 것은 이란이 유일하다. 특히, 역대 6번의 이란 원정에서 단 1승도 따내지 못하는 등 테헤란에서만 역대 2무 6패의 절대 열세에 있다.

◇**조 1위 도약 …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청신호'** = 한국은 현재 최종예선 A조에서 2승 1무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같은 2승 1무인 이란(+3)에 골 득실(+2)에 뒤져 있다.

이번 4차전은 한국으로서는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고비다. 이란을 꺾으면 3승 1무(승점 10) 조 1위로 올라서며 9회 연속 본선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밟는다. 남은 6경기에서 4승 2패만 해도 조 2위가 가능한 승점 22를 확보하게 된다. 월드컵 최종예선에서는 A, B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한다. 3위가 되면 힘겨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패하면 조 3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손흥민-아즈문 골잡이 맞대결** = 이란 원정 첫 승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손흥민(토트넘)이다. 손흥민은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물오른 골 감각을 선보이며 최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 9월 한 달간 EPL 3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그 기운은 대표팀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 6일 카타르와 3차전에서도 2-2 동점 상황에서 결승 골을 터뜨리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에 물오른 골 감각을 자랑하는 지동원과 구자철(이상 아우크스부르크),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키)도 이란의 골문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란의 경계 대상 1호는 공격수 사르다르 아즈문이다. 세대교체를 한 이란은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대표팀이 일찍 자리를 잡으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7경기에 나와 4골을 터뜨렸다.

◇**'베스트 11' 놓고 고심하는 슈틸리케 감독** = 이란의 전력이 강한 만큼 '공격 앞으로!'만 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선발진을 구성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앙수비수 홍정호(장쑤 쑤닝)가 카타르전에서 경고누적 퇴장당해 이란전에 나설 수 없는 만큼 포백(4-back) 구성도 관심거리다. 슈틸리케 감독은 카타르전에서 꺼내든 공격적인 4-1-4-1 전술 대신 2명의 더블 볼란테를 가동하는 4-2-3-1 전술을 쓸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원톱스트라이커에는 석현준(트라브존스포르)과 김신욱(전북)이 경합하는 가운데 파괴력이 좋은 석현준이 먼저 나올 공산이 크다. 좌우 날개는 경기 감각이 좋은 손흥민과 지동원이 유력하고, 섀도 스트라이커는 구자철이 맡는다. 중원에는 '캡틴' 기성용과 한국영(알 가라파)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좌우 풀백에 홍철(수원)과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포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앙수비는 김기희(상하이 선화)와 '베테랑' 곽태휘(서울)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키퍼는 김승규(빗셀 고베)가 유력하다.

/연합뉴스

광주 진흥중, 타이거즈기 호남 야구 우승

전남 여수중에 8-5 역전승

광주 진흥중이 '제10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진흥중은 10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전남 여수중을 상대로 장단 12안타를 터트리며 8-5 역전승을 거뒀다.

예선전에서 순천 이수중을 9-8로 이기고 준결승에 오른 진흥중은 광주 무등중을 11-6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여세를 몰아 우승기를 차지했다. 이로써 진흥중은 2011년 제5회 대회에 이어 2번째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대회 우승팀인 진흥중에는 우승기와 더불어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여수중)과 3위 2팀(무등중, 충장중)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부상으로 야구용품이 각각 돌아갔다. 참가한 모든 팀에게도 야구용품이 참가기념품으로 수여됐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진흥중 김백규는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다양한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개최됐으며, 지난 4일부터 10개 중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펼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